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왜 스티로폼 부표를 쫓는가?

- 플라스틱 없는 제주 바다를 위한 시민행동 -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1월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전체 의사와 관계없이 도민의 삶을 담보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실험이었다.

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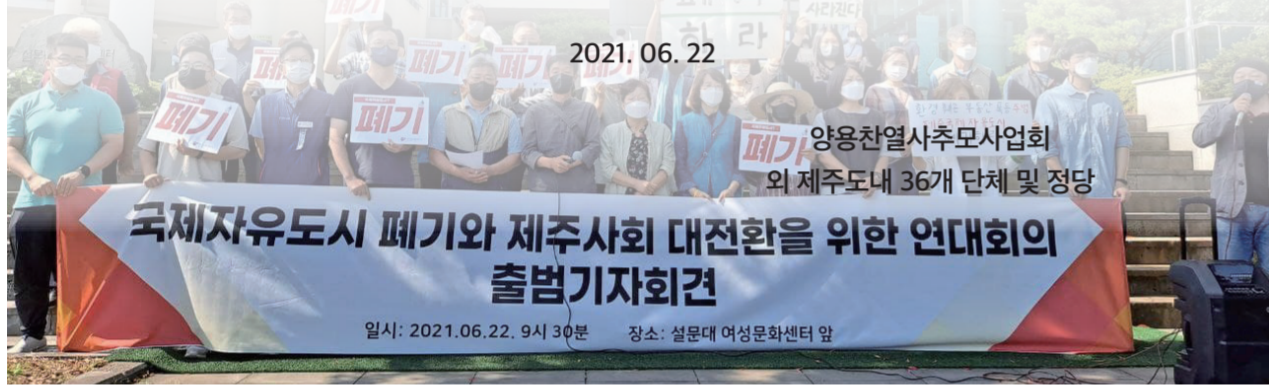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않았다. 제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기준 제주 영세 지역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제주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노동시간(상용직 노동자 기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맞벌이 가구 수도 가장 높다.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지갑은 '퐁오 속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은 제주 생태계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와 단절로 생물종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난개발로 인해 지하로 스며들어야 할 빗물이 농지와 주택을 덮치는 일이 다반사이다. 또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릴 뿐 교통 혼잡, 하수도,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의 몫이 되었다. 국제자유도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이다.

국제자유도시 문제점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도 중앙정부, 제주도정, 그리고 정치권은 지난 20년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유지하는 한 미래세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지난 2개월 동안 연대기구 구성과 활동을 논의해 왔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여 도민 합의를 모아낼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환경·경제 분야의 삶의 질 향상,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평화와 인권, 생태 환경, 노동의 가치, 사회연대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도민의 바람이 담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2021. 06. 22
양용찬연구소추모사업회
의 제주도내 36개 단체 및 정당
일시: 2021.06.22, 9시 30분 장소: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앞



<가두리양식장에 쓰이는 스티로폼>

제주 바다는 남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와 중국연안류, 한국 서해 연안류, 황하 담수교가 만나는 곳으로, 이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바다생태계를 자랑하지만, 반면 여러 곳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의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싸고 오래간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나라 남해안의 김 양식장과 가두리 양식장에는 스티로폼 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둥반도와 대만까지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폭풍이 불 때 이탈하여 바다를 떠다닙니다. 제주 주변 바다의 복잡한 해류는 제주 바다를 돌며 해안에 스티로폼 부표가 쌓입니다. 대부분의 스티로폼 부표는 제주 해안에서 밀물과 썰물에 휩쓸리며 제주 해안의 거친 현무암 바위에 깔려 작아지며 소멸합니다.

그러나, 소멸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일 뿐 작게 부서진 스티로폼 입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끊임없이 떠다니거나, 바위 틈에 끼어 있거나, 바위에 등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물에 떠 있는 스티로폼 알갱이들은 어류나 해양 포유류의 몸속으로 들어가 축적되기도 합니다. 바다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25년부터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의 양이 엄청나고 이 스티로폼 부표가 앞으로 몇 십년 간은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제주바다로 떠밀려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제주 해안의 스티로폼 부표를 찾아 구글지도에 위치와 수량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하는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안에 있는 스티로폼 쓰레기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서 쌓이는 곳의 위치와 양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제주도 전 해안을 모니터링하여 구글지도에 기록하는 것은 이후, 스티로폼이 잘게 부서져서 심각한 해양 오염이 되기 이전에 수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제주 해안의 스티로폼 부표를 찾아 구글지도에 위치와 수량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하는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안에 있는 스티로폼 쓰레기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서 쌓이는 곳의 위치와 양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제주도 전 해안을 모니터링하여 구글지도에 기록하는 것은 이후, 스티로폼이 잘게 부서져서 심각한 해양 오염이 되기 이전에 수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이와 플라스틱> @임형욱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아웃도어 업체인 [파타고니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동이모저모

- 5월 5월 4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7강. 제주의 동물
- 5월 6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8강. 제주의 물
- 제2공항 실리볼라! 성신마을 촛불마당(산신리)
- 5월 7일 [훼손오염 모니터링] 새별오름 [오름을 부탁해] 캣몰을 답사 [제보현장답사] 모구리 오름인근 벌채 관련
- 5월 11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9강. 제주의 해양생태
- 5월 12일 오동봉공원 민특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 관련 기자회견
- 5월 13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10강. 제주의 개발문제
- 5월 18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11강. 자연생태놀이
- 5월 21일 [오름을 부탁해] 아부오름, 다랑쉬오름 답사 제2공항 실리볼라! 성신마을 촛불마당(수선리)
- 5월 25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공회 기자회견(국회)
- 5월 26일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부지내 토지 쪼개기 매입 의혹 고발장 제출
- 5월 27일 [성명] 이미 불수용 결번내 오동봉 민특. 이제와서 추진하는제주시?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12강. 모니터링 방법론 제2공항 실리볼라! 성신마을 촛불마당(산신리) 부동산투자영주권제 관련 인터뷰
- 5월 31일 [논평] 유연한 심의. 1회 통과 적극협조? 과속, 난폭, 탈법. 도시공원 민간특례 원인은 무엇인가.
- 6월 6월 1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도의회 파케팅
- 1월 2일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6월 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부결 촉구 시민행동
- 6월 8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부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도의회 파케팅
- 6월 10일 [성명] 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하였고, 제주도의회는 도민주권을 포기하였다. 도민의 심판만 남았다.
- 6월 11일 [성명] 제주도정의 총실한 대변인. 강성의 의원은 사퇴하라
- 6월 14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관음사 탐방로 식생 모니터링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바다를 위한 시민행동] 1차 모임
- 6월 17일 회복원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강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 [성명] 주민갑박, 불통행정. 상하수도본부는 공사 철회하라!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준비회의
- 6월 19일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촛불집회(제주시청)
- 6월 21일 가슴이살곳제 참가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6월 22일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위한 3차 종합계획 반대 파케팅
- 6월 23일 회복원프랑스의 화북천 불법정용 관련 제주지사 등 검찰고발
- 6월 24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용천수 물환경교육 시연 [반박성명] 제주시는 몰타기 작태 중단하고, 규제적 규정과 고시를 제시하라!
- 6월 25일 [재판부 성명] 제주시장은 공사 사과하고, 화북천 원상복구하라!
- 6월 26일 국무총리 내방에 따른 제2공항 반대 파케팅
- 6월 28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기자회견 [훼손오염 모니터링] 새별오름
- 6월 29일 [오름을 부탁해] 정물오름 답사
- 6월 30일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바다를 위한 시민행동] 서부지역 모니터링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6.22)

도민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세감면, 각종 개발특혜 등에 얽은 대규모 자본은 제주에 빨대를 꽂아 배를 불리고, 그런 와중에 도민의 소득은 10년 남게 전국 최하위. 낫지않고 증산간은 개발로 피해쳐지고, 제주바탕엔 동물들이 팔팔. 이 모든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민낯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 단 마음으로 국제자유도시 폐기에 뜻을 모은 도내 단체/정당이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관심 갖고 함께해 주세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기자회견(6.28)

결국 도민의 뜻(여론조사 결과)을 저버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 마지막 날 환경부에 전달한 국토부. 그런데 말입니다. 국토부는 출구전략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선택한 것일까요? 제2공항 부지 내 '숨골'은 8개뿐이라고 우기며, 비상도민회의의 숨골 조사를 폄하하기 바뻐한 국토부가 이번 보완서에는 숨골 160여 개를 발견했다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발견한 숨골만 160여 개인 지역 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물길을 막으면, 성산선 동식물은 물론, 수해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돼 버릴 겁니다. 남은 것은 환경부의 부도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6.8)

난개발, 절차적 정당성 파괴, 투기 의혹 등 각종 문제점을

수 없는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와 정당이 도의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도의회는 하수 등 각종 인프라 문제 해결되지 않은 개발사업 추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는 왜 한 것일까요? 도민주권을 포기한 도의회에 남은 것은 도민의 엄청난 심판 뿐일 겁니다.



오동봉공원 쪼개기매입 의혹 관련 고발장 제출(5.26)

우리 단체의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토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일부 토주에게 땅을 쪼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땅을 쪼개 토주들은 쪼개고 얼마 지나지 않거나, 하루 이틀 후 제주도에 분할한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을 줄이는 전형적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그 많고 많은 도시공원 매입 부지들 중, 왜 일부 토주들의 분할 토지를 매입 고발장 매입해 준 것일까요? 이에 제주도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화북 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강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6.17)

갑박행정, 불통행정, 거짓행정의 끝판왕. 화북 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가 강행되자, 당일 펌프장 인근에서 관음마을 주민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슬그머니 공사를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공사를 방해할 시 손해배상과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겁박은 물론, 간이하수처리시설을 비가 오면 빗물에 담배공초 등 쓰레기를 거르는 시설이라 거짓 설명을 하며 회유하기까지. 행정은 주인이 우순한 걸까요? 불통행정, 거짓행정에 주민들의 갈등과 근심만 깊어갑니다.



화북펌프장의 화북천 불법정용 관련 고발장 제출(6.23)

화북펌프장이 화북천 위에 지어졌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은 과거 화북펌프장을 지으며, 하천 하류의 두 갈래 물줄기 중 동측 갈래를 매립으로 막고, 그 이북부분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설을 위한 화북천 정유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사실인데도, 관음마을 주민들의 정보공개에도 행정은 하천 정용 허가서는 물론 법적 절차인 고시내용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음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당 문제의 진위 확인을 위한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오름을 부탁해!] 아부오름 답사(5.21)

아부오름 피크닉, 여러분은 들어 보셨나요? 최근 오름에 가면 능선에 돛대리를 펴고, 피크닉 가방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검색으로 알아보니, 제주 오름에서 피크닉 사진을 찍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듯 했습니다. 문제는 진드기와 탐방로 이탈인데도, 육지와 달리 송이로 이뤄진 오름에서의 탐방로 이탈은 오름 훼손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던 사실. 또한 방목지로 이용되는 오름에선 진드기에 주의해야 하지만, 짧은 옷을 입고 장시간 풀밭에 앉아 있는 탐방객들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바른 오름탐방을 위한 약속, 탐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올해 꼭 계속됩니다.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기초과정

어느덧 숨가쁜 4-5월의 수업 일정이 끝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조심스런 상황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함께해 준 우리 교육생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자원활동가 그룹의 활동에 동행하며, 현장교육을 이어 가게 되는데요. 6월에는 한라생태길잡이의 관음사탐방로 식생 모니터링과 올레의 용천수 물환경교육 시연에 함께했습니다. 용천수에선 물 허벅도 지어 보고, 관음사탐방로에선 쪽지를 따라가며 식생도 익혀 보았는데요. 여러 상황에도 즐겁게 함께해 준 우리 교육생 쌤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바다를 위한 시민행동(6.30)

우리 단체는 바다 쓰레기 중에서도 스티로폼 부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주 해안은 현무암으로 이뤄져 있어, 해안으로 밀려온 스티로폼 부표 알갱이가 현무암 틈 사이사이에 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알갱이가 돌들 사이 생명체들에게 악영향을 준단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라생태길잡이와 선성님들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지난 30일에는 쌤들과 서쪽 해안을 돌며, 부표가 밀려오는 지점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니터링 방법 익히기>



<모니터링 구역 배분>



<해안 위치 확인하기>



<스티로폼 철거>